

소나무 정지전정 방법

L A N D S C A P I N
G



농학박사 박형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머리말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수종이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종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커서 거의 초심자나 숙달된 전문가도 재배하고 있다. 소나무 수형은 어떤 수형으로 만들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소나무는 초심자에게도 친밀감을 주며 나무 수형 만들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아무리 만들어도 싫증이 나지 않고 심오한 면도 있다. 소나무의 수형 만들기에 있어서는 자생지에서의 감각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약동감이 넘치는 수형을 볼 수가 있다. 현재 소나무는 극히 평범한 조경수 소재로서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수형을 유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정지전정을 통한 수형유도 된 전후의 모습

1. 정지전정의 방법 및 유형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지엽의 신장량 및 밀도, 분지량, 맹아력, 개화시기, 착화지, 성장과정 등을 먼저 숙지하고 어떻게 전정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강 전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동화작용이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너무 약 전정을 하게 되면 전정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생장이 왕성한 나무는 강 전정을 했을 때 활력이 떨어진다. 세력이 약한 나무나 노목에는 약 전정을 실시한다.

(1) 방법

- ① 작업순서는 나무의 위에서 아래로 실시한다. 수목의 주지(主枝)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줄기를 반드시 하나만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높이와 굵기를 가진 주지를 나란히 2개 자라게 하지 말라는 뜻).
- ② 줄기에서 자라난 불필요한 가지나 근주부(근주) 또는 뿌리에서 결음이 나오는 것은 바로 제

거한다. (바퀴살가지, 하향지, 내향지, 평행지, 교차지는 제거한다)

- ③ 수형상 좋은 위치에 있는 도장지는 끝부분만을 약하게 잘라내어 세력을 약화시킨 후 장차 수형 만들기에 활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도장지는 모두 제거한다. 이 때 도장지를 기부에서 잘라버리면 새로운 도장지가 발생되므로 먼저 도장지 길이의 1/2정도를 잘라 세력을 약화시킨 후 겨울 전정 때 기부에서 자르도록 한다.(고사지, 이병지, 꺾인 가지)
- ④ 회지(懷枝) ; 햇볕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생겨나는 가지를 제거하며 수관의 내부는 흰하게 하되 외부는 수관의 윤곽선에 지장이 없도록 솎아 낸다.
- ⑤ 가능한 한 가지 끝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수관선을 이루도록 하며 꼭이 들어있는 주간의 내각에서 발생한 가지는 제거한다. 또 필요로 하는 빈 공간을 메우려면 빈 공간 쪽으로 향한 눈을 가지 끝만 남기고 자른다.
- ⑥ 수형을 축소시키려 할 때는 수액이 유동하기



▲ 전정 전(좌)과 전정 후(우)의 모습

전인 이른 봄에 몇 개의 맹아만 남기고 강하게 전정한다. 휴면기에 접어든 1월부터 2월 하순에 전정하는 것이 좋다.(수관의 폭을 넓히려면 나무의 끝부분을 잘라낸다)

- ⑦ 가지줄이기 할 경우, 강한 가지를 만들어 내려면 가지를 짧게 잘라내야 하고 약하게 가지를 키우려면 길게 남기고 잘라야 한다. 즉 강하게 자라는 가지를 짧게 자르면 남아 있는 눈이 자극을 받아서 한층 더 길게 자라나 전정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길이의 1/3~1/4 정도만 자르도록 한다.
- ⑧ 가지숙기를 할 경우 가지의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왕성하게 자라는 쪽은 강하게, 빈약하게 자라는 쪽은 약하게 솎아 주도록 한다. 가지를 자를 때는 위로 뺀가지 아래로 처진 가지를 나무의 균형에 맞게 자른다.

2. 가지치기

(1) 방법

소나무는 일반적으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상순 또는 2월 중순에서 3월 상순에 가지치기를 한다.

혹한기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목적

① 나쁜 가지를 자른다.

겹가지, 엇갈린 가지, 수레바퀴가지, 아래로 처진 가지, 선가지 등을 뽑는다. 그러나 선가지는 긴 것은 자르지만 짧은 것은 남겨서 선반 가지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이상과 같은 나쁜 가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모미를 살린 나무도 소나무에는 수레바퀴

가지가 있어도 혹이 되지 않으므로 그다지 일찍 처리할 필요는 없다.

② 불필요한 가지를 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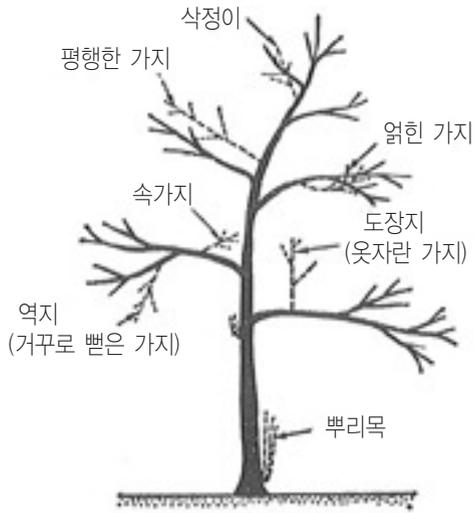
수형을 만드는 데 있어 불필요한 가지는 잘라버린다. 자른 자리는 약간 패도록 도려내고, 유합제(발코트)를 발라주어 새살이 돋도록 도와준다. 필요 없는 가지를 자를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최종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두 제거해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예비가지로서 작용하며, 줄기의 비대를 촉진시키기도 한다. 당장에 있어도 무방한 것이라면 성급히 잘라버리지 말도록 한다.

③ 희생지의 처리

어린나무를 양성할 경우, 줄기의 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희생지로서 아래의 가지를 키우는데, 너무 굵게 키우면 자른 자리의 처리가 어려워지므로, 적당한 시기에 자르도록 한다.

2. 전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

- ① 위에는 강하게 전정하고 밑가지는 약하게 전정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실시한다. 왜냐하면 나무는 생리적으로 정상부 우세성이라 하여 가장 정상부가 제일 잘 자라고 밑 부분



은 잘 자라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수종의 나무를 어떤 형으로 전정하느냐 하는 기본 방침은 위의 그림을 참작하여 전정한다.
- ③ 몇 년을 두고 전정하여야 자기가 구상한 수형이 완성되므로 구상하는 수형은 심사숙고 하여 확신을 세운다
- ④ 큰 나무의 형태는 가지가 아래로 쳐져 있으나 생장하는 가지는 위로 올라간다. 따라서 노령목의 형태로 만들려면 올라간 가지는 아래로 유인하거나 전정한다.
- ⑤ 전정하기 전 나무의 가지가 어떤 각도와 어떤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원하는 각도와 분포를 균일하게 한다. 즉 전체적으로 질서 있게 배치하고 그 원칙에 벗어나면 전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정상적인 나무는 수목의 정상부까지 주간이 있으므로 주간은 제거하지 않는다. 단 수고가 너무 커 주간을 새로 발생하는 가지로 다시 세워줄 경우에는 원순을 자를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면 전정할 가지는 대부분 아래와 같은 것이다.

- 고사한 가지
- 전체적으로 각도가 너무 올라간 가지
- 얽힌 가지
- 거의 같은 부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뻗은 가지
- 다른 가지보다 월등히 굵은 도장한 가지
- 통풍에 너무 방해가 되는 가지
- 속에서 자란가지
- 뿌리부분에서 나오는 가지

그 외에도 주로 소나무 전정에서 많이 응용되는 방법인데 그림에서와 같이 꼭이 있는 소나무에서 외각에 있는 가지는 살리고 내각에서 발생한 가지는 전정한다. 특히 소나무 전정에서 특히 염두 해 두어야 할 사항은 잎이 있는 곳에서 자르면 눈에서 새가지가 발생하는데 새 가지의 발생되는 수는 나무의 세력에 따라 좌우되나 대개는 5~6개의 정도이다. 따라서 이점을 고려하여 필요한 길이에 따라 전정한다. 종합적으로 그 나무의 가지를 질서정연하게 전체적인 균형이 맞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